

기본급 141,300원 인상!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저하 금지!
노조활동시간 보장! 발암물질 및 CMR독성물질 사용금지!



지부교섭 속보

7호

2025.06.12(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8차 지부교섭_ 사측 2차 제시안 제출]

임금인상도 지부교섭에서!



오늘도 임금인상안은 없었다

6월 12일(목) 리텍에서 열린 8차 지부교섭에서도 임금인상안은 나오지 않았다. 5차, 6차 교섭에서 계속해서 임금인상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8차 교섭까지도 답이 없다.

그동안 임금인상은 사업장 지회보충교섭에서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지부집단교섭 자리에서 다룰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고 교섭에서도 강하게 의견을 전달했지만 사측은 심각성을 못느끼는 것 같다.

임금 외 나머지 요구안 일부 제시

사측은 임금인상 외에 노조활동시간과 작업중지권을 일부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부 총회시간은 언급조차 없고 작업중지권과 기후위기 대응, 임금체계 개편시 노사 합의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할만한 수준

의 내용이 없다.

지부는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올해 임금인상은 지부 교섭에서 논의할 것이다. 예년처럼 계속 임금인상안 내지 않고 버티면 지부가 지회별로 교섭하도록 열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노측 교섭 위원들은 임금인상안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요구안도 전부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차기교섭 제시안에 따라 노사관계 달라진다

지부는 차기교섭에서 임금인상을 포함해 얼마나 진정성있는 제시안이 나오느냐에 따라 교섭방향을 정할 것이다. 원만한 노사관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갈지, 노사 대립 속에 갈등적인 노사관계로 갈지 기로에 서있다.

* 차기 교섭 : 6/19(목) 14:30, 테스트테크

8차 교섭 속기록

임금인상안 제시해야 논의한다

노 : 어제 노측 교섭위원들은 금속노조 1만 간부 상경투쟁에 동참했다. 2025년에도 노조법 개정, 노정교섭 쟁취를 새로운 정부에 알리고자 했다. 금속노조는 말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어제 서울 집회 다녀왔다. 오늘도 리택에서 교섭 전에 집회를 진행했다. 경영악화를 빌미로 현장 노동자에게 계속 고통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중단되었으면 한다. 사측도 조속히 사태 해결 방안을 강구해달라.

사 : 리택까지 와서 감사하다. 6월부터 더워지고 있다. 건강 조심하셔라.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다. 이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한다. 따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없다.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다. 쉽지 않은 상황 서로 잘 이겨나가면 좋겠다.

<2차 제시안 제출>

사 : 1차 제시안과 비교해서 설명하겠다. 임금 인상안은 추후 제시하겠다. 임금의 정의 및 임금체계 개편은 1차 제시안과 동일한데 3항에 '통상적인'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고 수정해서 제시했다. 성과급을 제외한 임금 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의미다. 노조활동시간 보장은 새로 제시했다. 담당간부 중 대의원은 제외하고 상집간부 이상으로 하고 분기 8시간을 보장하는 결로 제시했다. 발암물질, 독성물질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대상자를 한정했던 부분 제외하고 전체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하는 결로 수정 제시했다. 단, 정기 안전교육에 반영하는 것이다. 통일요구안인 작업중지권은 중앙교섭과 약간 내용이 다르다. 중앙교섭은 '중대'재해라고 제시했지만 저희는 일반 재해까지 포함할 수 있게 확대해서 제시했다. 대

신 '합리적인' 이유로 대피한 경우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수정해서 제시했다. 나머지 제시안은 1차 제시안과 동일하다.

노 : 노조활동시간 보장에 총회는 왜 없나?

사 : 아직 논의 중이다. 논의 후 제시할 것이다. 임금은 아직 논의된 지회가 거의 없어서 추후 제시로 했다.

노 : 지부교섭 사업장은 임금도 이 자리에서 다루겠다고 했으니 지회보충교섭에서는 당연히 다른 내용이 없을 수밖에 없다. 사측이 예년처럼 임금 제시를 끝까지 안하면 내려주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올해는 이 자리에서 다룰 것이다. 임금 제시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임금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나머지 요구안도 검토할 것이다. 다음주에는 꼭 제출하셔라. 제시안이 정회하고 논의할만한 내용이 아니다. 중앙교섭과 다른 내용 설명하셨지만 사실 대동소이하다. 임금이 제시되고 나머지 요구안 추가 제시될 때 논의 가능하다.

작업중지권 불이익 처우 내용 중 '합리적인' 이유라고 제시했는데 이유가 뭐가?

사 :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당성 있는 경우라고 표현하면 노사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서 합리적인 이유라고 표현했다.

노 : 콘티넨탈 대법원 판례도 합리적인 이유 보다 노동자 입장에서 위험을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업중지권을 판단했다. '합리적인'이라는 문구는 빼고 제출하셔라.

사 : 최종 제시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해보겠다.